

光日春秋

이해인



어떻게 남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어떻게 남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다/함께 스러진 슬픈 남들이어/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이 조그만 나라 위해/목숨까지 바친 고마운 남들이어/지금은 이 낯선 땅/뒤에 새겨진 남들의 이름을/바라보고 기도처럼 불러줍니다/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정다운 별로 살아오는 남들/지지 않는 그리움이여.....

려고 안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어 그대로 두고가며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고 한다.

여중시절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거룩한

군인들을 위한 기도

예식처럼 동작동 국군묘지를 참배하게 하고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를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쓰도록 가르쳤던 담임선생님들의 영향으로 나는 지금도 6월이 되면 전쟁터에서 희생된 군인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기로 지향을 갖는다.

어린 시절 전쟁을 직접 겪어서인지 지금도 종종 총소리에 놀라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 나는 방공호에 숨어있거나 피난 길에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한다. 가족 친지들과 트럭을 타고 피난을 왔던 이곳 부산에서 일생을 봉헌하는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문득 신기하게 여겨질 적이

있다. 전사가 아닌 요즘은 상황이 매우 달라진 했지만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 6월만이라도 각별하게!

얼마전 강원도 춘천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 지난 2월에 입대해 조카에게 면회하러 갔는데 군부대에서 듣는 빠삭새소리, 무더기로 피어 있는 패랭이꽃들이 유난히 예절할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머지않아 백일 휴가를 나온다는 조카는

몸이 10킬로나 빠진 걸로 보아 그간의 훈련이 꽤 고되었던 모양이지만 집에 있을 때 보다 안락으로 훨씬 성숙하고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어머니로 호칭하고 모든 말을 다 '습니다' 체로 바꾸어서 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음이 나에게 새삼 놀랍고 대견했다. 초등 학교 시절부터 유학을 다녀와 서른 다 된 나이에 현역으로 입대하니 적을 못하고 힘들어 하진 않을까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그는 한결 늙음과 씩씩함 청년의 모습으로 멋지게 변해 있었다. 직속상관이 사실은 자기와 나이가 같지만 그래도 서로 잘 지낸다는 것, 입대 전에 들던 것과는

달리 큰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고 활만하다는 것, 예외적인 혜택을 누리기도 보다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땀땀하고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의 말에 나는 저이기 안심되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며 그레도 한번 좁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기다리는데 끝까지 돌아보지 않는 조카에게 나는 '그래, 잘 가라 권이병! 훌륭한 군인답게 행동 해 주어 고맙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렴'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몸 마음 건강하게 성실하게 인내롭게 맡겨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신을 넘어서는 넓은 마음과 동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나날이 새롭게 무장하는 투철한 투사에게 하소서. 그들의 가족인 우리 또한 변함없는 초록의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보고 싶고 걱정 되는 애뜻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씩씩하고 용기 있고 절제되고 참을성 많은 '군인정신'으로 우리 또한 일상의 싸움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승리가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수녀·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현안 법안 6월국회 반드시 처리돼야

4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 'F1(포플러 원)특별법'과 '서남권 등 낙후 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합당 등 정치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자칫 지역현안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F1 특별법 등은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사업 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F1 대회'가 예정대로 오는 2010년 개최되면 늦어도 7월 안에 자동차 경주장 건설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F1 대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F1특별법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14일째 상정 예정인 서남권 특별법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타지역 의원들의 인식 부족과 지역이기주의가 맞

도매가 내려도 소매가 오르는 휘발유값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결정구조다. 공정도가 떨어졌는데도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오른다고 한다. 산업자원부나 석유공사마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만 봉'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휘발유값은 천정부지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무연보통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부터 16주 연속 올라 5월 말 1.1천546.53원까지 상승했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주 1천548.01원에 근접한 것이다. 상승폭이 무려 10.9%에 달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도매시장의 가격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유사들이 주유소나 대리점에 판매하는 무연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넷째주 1.1천495원에서 다섯째주 1천491원으로 4원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4.75원이나 올랐다고 한다.

無等鼓

곡식과 마찬가지로 생선에도 제철이 있다. 누룩누룩 익은 보리를 베어내고 모내기 한창인 5~6월에는 병어가 많이 잡힌다. 어획량 뿐 아니라 산란기여서 살이 통통하고 맛도 최고다.

이맘 때 병어는 신안 입자와 자은·비금·도초·우이도, 영광 낙월도 인근으로 몰려든다. 이 일대 해역에 별과 모래가 섞여 병어의 먹이인 첫 새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병어는 덕자(뚝 병어)로 불린다. 처음 큰 병어를 잡았던 어부가 평소 사모하던 선주 딸 이름을 불린 데서 유래했다는 '민가나 말거나 식' 얘기도 전해진다. 덕자께 개에는 일부러 무나 야채를 넣지 않기도

유래는 고수운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대변화가 일고 있다. 동해에서 갯 장어가 잡히는가 하면 남해안에서 때 아닌 오징어 대풍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특히 전남 어민들의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 양식에 타격이 우려된다. 고수운이 지속될 경우 김과 미역이 녹아내리고 치명적인 갯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저가의 외국산 홍수에 기상이변으로 인해마리 건져 올리는 게 고작인 경우가 많다.

병어 흉어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병어 흉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따려다가 자주 불거지는 까짜 박사학위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박사학위를 가지려하는가를 생각해본다.

서양권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저변에 깔린 문화적 배경은 아무래도 기독교사상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 즉 '양심'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은 자신의 양심 이전에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하는 '체면'을 더 중시하는 문화권이다. 아마도 유교사상의 영향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교통법규나 일반규칙 같은 것을 지킨다. 북장 같은 것도 소위 '명품'이나 남의 시선에 아예

결혼식으로 집안위세를 과시해 해야 한다. 차의 종류에 따라 경비員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싼 차를 타야한다. 동료 교수들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실력보다는 간판과 외모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 '체면' 손상을 보면서 우려를 위해서이다.

몇 년 전 중국엘 다녀온 일이 있었다. 북경 공황에 도착하는 순간 발전된 중국의 모습에 새삼 놀라워할 겨를도 없이 공황 대합실 군중들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때 같은 수수한 그들의 모습들이 한 시간 전 사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인천 공황의 한국인들의 모습과 겹쳐져 너무나 크게

기고

김영진



최근 광주의 도심 거리에 불법광고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점포나 업체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좀 더 자극적이고, 풍성광고물 등 새로운 광고물들을 만들어 내며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옆집보다 크고 많은 간판을 달아야 눈에 띈다는 경쟁심과 벽보·전단·현수막 등 값싸고 쉬운 방법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착된 간판 등은 홍보는커녕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광고효과는 별로 없이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시는 금년에만 지금까지 무려 131만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시가지는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제시하여 업소의 홍보는 물론 도시미관 형성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벽보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과 걸이대를 확충하여 홍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 시설물을 수준 높게 디자인하여 가로환경의 품격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반면에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영음업소 벽보나 전단, 성인 콘텐츠와 대리운전 등 전차번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영영정지와 고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속적으

광고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 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는 산술적으로 매일 1만 건 이상의 정비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시·구 합동단속을 수차례 실시하고 주말, 야간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정비 인력 등의 한계와 불법광고물을 이용하는 대다수 업체나 점포가 소규모 혹은 영세하다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다.

도시는 광고물로 인하여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보일수도 있고, 반대로 아름답고 특색 있게 될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을 통해 그 도시의 표정이 드러나고 풍유가 결정된다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는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물의 허가 당시부터 광고물의 위치와 수량을

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속위주의 정비보다는 새로운 광고문화 정착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상업 위주의 경쟁적·이기적인 광고문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광고문화를 조화롭고 특색 있게 바꾸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많은 외지 손님들이 이 지역을 찾아올 것이다.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가꾸는 것은 광주시민에게는 문화수도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광주를 찾는 외지인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광고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눈의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한다.

<광주시 건설국장>

중국산 저질 철강재 수입 막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WTO 협정에 따라 철강재 수입 관세를 완전 폐지했다. 또 수입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대부분 없었다.

반면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아직도 품질인증제, 수입허가제, 사전등록제, 수입모니터링제도 등 다양한 통관절차와 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EU는 모든 철강재에 대한 수입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품질 검증은 커녕 외국 비관세 장

벽 현황과 국내 불량 철강재의 유통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 사전신고제는 품질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중국산 값싼 철강재 수입량이 부족하면서 영세한 시공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값싼 중국산 철강재를 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표준규격 및 인증제 등을 검토하고 수입 철강재의 위장 판매, 중국산 저질 철강재 수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형룡·광주시 동구 학동

한국 사람들, 체면 좀 그만 차립시다

관심이 없이 값 싸고 자기 편리하면 그만이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남의 시선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보기에 소위 천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거리가 없으면 당당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연속극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하는 대사를 자주 듣는다.

'나의 삶을 산 다기보다도 '남이 어떻게 볼까'는 남에게 보이게 하려는 조마조마한 한국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입학시험에 실패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데 이는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가문의 '체면'에 손상을 주었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집에 명품 옷을 입어야하고 성형수술로 외모를 꾸며야한다. 빛을 지고라도 화려한

대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한국 '큰일 났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같은 동양권인데도 이렇게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체면' 문화가 반드시 유교의 영향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그것에 같이 묻혀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였었는데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니 이지구상에서 가장 솔직하지 못하고 허세와 위선의 노예가 되어있는 민족이 부끄럽게도 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금 한국은 줄기차게 '자주'를 부르고 있다.

체면치레는 서로의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이면 족하다. 이제는 '체면'보다도 진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솔직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자는 자주운동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최형진·나주경찰서

경찰서까지 파고든 전화 금융사기, 조심 또 조심해야

지난 금요일 한 경찰서에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각 사무실마다 금융기관 압류가 걸려 있으므로 조금 후 분청 수사과 경제팀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올때니 금융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라는 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왔다. 한 수사팀장의 추궁으로 결국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이들은 중국, 대만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연결 전화로 국번을 정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 같은 국번호를 쓰고 있는 경찰관서로 계속된 전화가 온 것이다.

이제 경찰관서까지 전화사기가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10년 동안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3년 전부터 인출 한도를 낮추고 대만인 휴대폰 번호가 잘 이뤄지면서 지금은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현재 법원장도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농촌에서 살고계시는 노인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낯선 발신자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 않아야 하겠다. ▲최형진·나주경찰서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7-0118)	광 고 국 2200-521	(F A X 222-0195)
경 제 부 2200-616	여론개발부 2200-62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